外國投資家가 본 韓國의電子工業

모토로라 코리아 주식회사
부지배인 하 워 드 알 쉴 즈

1958년 한국최초로 진공관 라디오가 생산된 이래로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한국의 전자공업이 성장산업으로서의 각광을 받아 제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고 보겠다.

한국의 전자공업에 대한 문외한인 본인이 한국의 전자공업에 대한 제 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보았던 바를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1968년 본인이 "모터롤라 코리아 주식회사"에 부임한 이래 한국의 전자공업은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보겠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모터롤라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제품의 부품 분야에서는 반도체 소자와 집적회로가 전체 생산액의 약 65%를 점하고 있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계 직접투자 회사에 의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 회사가 부품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9년에 73%에 달하고 있다.

또한 부품 부분이 총 전자제품 생산액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것도 미국계 기업의 진출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제국의 전자공업에 공통된 현상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공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노동의 절대수요가 타 어느 산업 보다도 절실히 요청됨으로 해서 선진제국의 비싼 노동력 대가보다 저렴한 노동력의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전자공업은 고도의 기술과 정밀을 요하는 제품인 관계상 한국인의 섬세하고 영특한 두뇌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지하자원이나 국내 자본이 선진제국 보다도 부족한 관점에서 볼 때 기술개발을 위한 전자공업 육성에는 외국자본이나 기술의 유입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된다. 그 실례로 다른 산업부문은 어떠한 상황하에 있는지도 모르나 최소한의 전자공업 부문에 있어서도 합작투자 내지는 차관도입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69년부터 1970년 사이에 실현된 합작투자선의 국적을 보면 미국이 11개, 일본이 14개기업으로 건수에서는 비슷하나 투자액에서는 일본이 총 투자액의 60%이상을 점하고 있다. 부문별로도 투자선 모두가 부품생산 업체에 거의 집중되고 있으며 산업용 기기 부문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자공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기술향상이 필요한바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의 기술도입을 촉진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국내연구 개발투자, 특허등록 기술도입 상황을 제도화하고 향상시켜야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기술개발 협력이 단순한 정책적 지원에서만 그치게 된다면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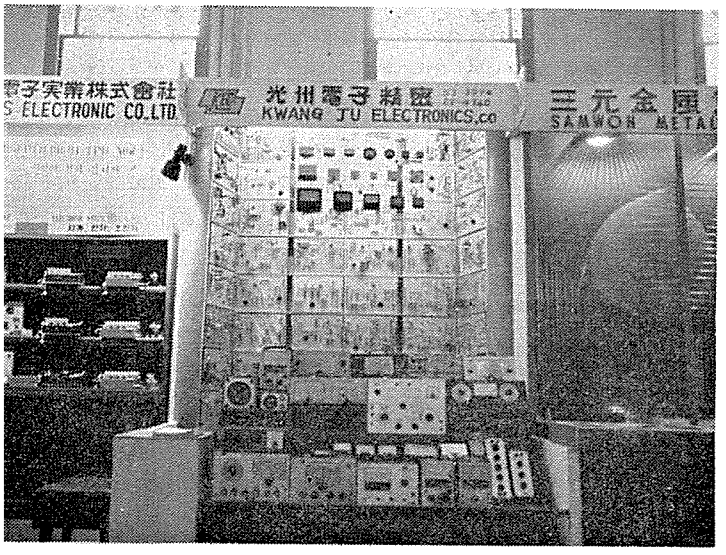
더욱이나 전자공업은 항상 발전하고 향상되어야 하는 점을 볼 때 Dynamic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 動的인 제품을 적기에 생산하여 공급키 위하여서는 정부의 신속하고도 절대적인 협조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향상도 시야를 넓혀 장기적으로 본다면 발전의 서막단계에 불과하며 금후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기술혁신의 템포가 빠른 산업분야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나 그 파급효과가 전체 사회에 미칠뿐 아니라 선후진국 간의 수십년에 이르는 기술격차를 최단시일 내에 극복 향상시켜야 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으로 보아 그 중요성은 대단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도 과거와 같이 가정용 전자기기의 내수판매에만 치중, 국한 하지 말고 전자기기의 모체가 되는 부품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에 집근함으로써 전문화되고 계열화된 체계적인 생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여러 부품이 조화되어 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도 이의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대 산업기기의 대부분 근간을 이루는 전자제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되리라고 권장하고 싶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소 혹은 한국정밀기기센터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낙후된 전자기술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것이며 새로운 시장개척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동안 대부분의 전자제품 수출 시장이 미국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제국에 수출되었으나, 세계시장에 있어서의 기

호의 다양성, 가격의 진폭, 제품모델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자제품의 구매력이 각국마다 다양하게 상이한 바가 있으나 국제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품질보장이 되어야 하는 반면 가격이 저렴하여야 구매력이 상승되는 바 이의 촉진을 위한 원가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리라고 본다.

한국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9개 부품 전문화 계열화 공장이 완공되고 정부의 금융투자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앞으로의 한국의 전자공업은 저렴하고 풍부하고 또한 잘 훈련된 기전자와 더불어 다량생산과 원가절감으로 많은 외화획득은 물론 전자공업 개발에 획기적인 밝은 장래가 약속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